



“시원합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은 8일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히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울창한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담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친환경농업 돈 되기 시작했다

농가소득 증가율 5년만에 전국 최고로…부채는 크게 줄어 최저

소라도 팔아야,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던 전남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농가 부채도 전남은 지난 200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지난해 크게 줄어 가장 빚이 없는 고장이 됐다. 별이가 늘고, 빚이 줄면서 ‘잘사는 전남’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은 깨끗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남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있는데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지난해 농산물 시장 확대와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농가 소득은 가구당 평균 301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8만원이 줄었다. 반면 전남은 전년보다 280만원이 증가한 3043만원을 벌어들였고, 부채도 167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이 6.1% 감소했지만 전남은 무려 10.1%나 늘어 농가소득을 조사·발표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9개 도 평균(3014만원)을 앞질렀다.

또 지난해 전남 농가 가구당 평균 부채도 전년보다 17.3% 감소해 전국 평균 농가 부채(2604만원)보다 933만원이 적었다. 이로써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농가 부채가 적은 곳이 됐다.

시간을 2006년으로 돌려보면, 전남의 농가 소득은 2797만원이었고, 부채도 288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업이 5년 만에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 쌀 등 입



소분이 나기 시작한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개척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서울시 등 15개 시·도 일선 학교 급식에만 2만9931t의 쌀과 농산물을 공급해 1108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올해도 광주지역 유치원과 일선 학교 등 556개교에 2000t의 쌀을 공급하는 방안을 광주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또 한화호텔, 신세계푸드, 제너시스 BBQ 등 60개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대량 농산물 소비처를 확보해 3750억원의 벌어들였고, 자체 판매망 110개소(수도권 22곳, 영남 17곳 등)를 확충해 3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밖에도 고품·화순·완도·영광·신안 등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가공·판매하는 25개의 유통회사가 지난해 1695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산물 유통의 협력화를 특별히 하고 있다.

전남도 손인호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져 전남 농가의 수입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지 유통회사를 늘리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곡성·담양 장수 이유 있었네

공기중 음이온 대도시 10배 식수 게르마늄 생수의 2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수마을인 구례·곡성·담양 지역 내 대기·물·토양·식품에서 장수 관련 성분이 다양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례 산동 계천과 곡성 목사동 용봉, 담양 용면 월계 등 전남 장수마을 32곳을 대상으로 환경 특성을 연구·분석한 결과, 대기와 물·토양 등에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대기질은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이 구례의 경우 $\text{cm}^3(1\text{cm}^3 = 0.001\text{리터})$ 당 2039개, 곡성 1843개, 담양 1700개로, 대도시(200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는 $13.2 \sim 27.8\text{ }\mu\text{g}/\text{m}^3$ 으로,

대기환경 기준($150\text{ }\mu\text{g}/\text{m}^3$)에 비해 훨씬 낮아 대기질이 보건위생적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토양 중금속 없이 깨끗

식품은 채소·콩류 선호

되지 않아 안전성을 입증했다.

주민 식생활 습관 조사에서는 채소류와 두류(콩·된장·두부) 선호도가 91.8~94.5%로 가장 높았고, 주요 단백질 공급원은 전통 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흡연과 음주에 대한 절제된 생활습관과 활발한 육체적 활동(1시간 이상 89%), 충분한 수면(평균 7.5시간), 정은한 상태의 숙면(93%), 규칙적인 생활습관(횟수·시간·식사량)이 장수요인으로 조사됐다.

양수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청정한 대기질 상태에서 자연친화적 채소류와 두류,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절제된 생활과 활발한 육체활동을 하는 것이 장수 비결이었다”고 밝혔다.

구례·곡성·담양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국내 대표적 장수지역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바가지 업체’ 발 못 붙인다 정부합동점검반 20곳 철퇴

여수세계박람회 D-3

여수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기간에 반짝 특수를 노리고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던 암체 상인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숙박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계시 여부를 확인하고, 숙박업소들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또 부당요금, 허위요금, 요금담합,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1899-2012) 통보 스티커도 제작해 부착했다.

앞서 여수시와 조직위는 지난 2월

부터 단속에 들어가 20곳을 적발하고 1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7곳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조직위는 지난 2일 박람회장 내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식료업업체를 퇴출시켰다. 이 업체는 시중가보다 200~400% 비싸게 음료수를 팔다가 적발됐었다.

한편 합동점검반은 여수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점검활동을 펼쳐 ‘바가지 요금없는 엑스포’를 만들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본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출발확정) ₩34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구중산 철쭉 축제 등반 ₩39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9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텔로스 ₩51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3일	항공으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899,000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699,000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팁
유럽	유럽으로 떠나자!
★ 서유럽 3국 8일 ₩2,890,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택스
★ 서유럽 5국 10일 ₩3,690,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택스
★ 안탈라/터키 일주 8일 ₩2,290,000~	불포함: 공동경비
★ 스페인/포루투칼 10일 ₩3,290,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4일 무안-북경/평양/면산 ₩869,000~

5일 무안-북경/평양/면산 ₩919,000~

불포함: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4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29,000~

5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99,000~

4일 무안-상해/장가계 ₩899,000~

5일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주가각 ₩1,299,000~

5일 무안-상해,황주,황산 ₩7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W120,800) 단체비자, 가이드&기사팁

청주/연길 전세기(KE) [6/30~8/29(수/토)] 출발

★ 백두산[북파] 3박5일 ₩1,080,000~

★ 백두산[북파/서파] 3박5일 ₩1,110,000~

★ 백두산[서파/북파] 4박6일 ₩1,150,000~

불포함: 가이드&기사팁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 둘 ₩839,000~

실 속 ₩789,000~

품 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장비자(10\$), 매너팁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p